

사회

# 전남교육청 20억 '보은 사업' 의혹

## 지지사·동생 근무 목포해양대와 '선상무지개학교' MOU 배경 관심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편성된 예산 외 별도재원 20억원을 마련해 지역 국립대학교와 '선상(船上) 무지개학교' 사업을 추진키로 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국립 목포해양대학교와 '선상(船上) 무지개 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선상 무지개 학교는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에 해외·해양체험학습 기회를 제공,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청이 선발한 중학생 300명이 올 여름방학 1개월, 겨울방학 3주간에 걸쳐 대학측이 제공하는 실습선을 이용, 일본·중국 등 해외를 탐방하는 내용이다.

선상 무지개학교는 교육청이 일정한 예산을 목포해양대학교에 제공, 위탁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 파트너인 해당 대학교에 공교롭게도 장만재 도교육감과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근무하고 있어 구구한 해석을 낳고 있다.

해당 대학의 한 교무 간부는 '전남도교육감 도민후보 추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추대위는 지난해 6·2선거 당시 장만재 교육감 후보를 도민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장 교육감의 가족 중 한 명은 이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지낸 뒤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교육감과 대학 관계자들의 남다른 인연이 사업 추진의 배경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추정 사업비 20억원에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내기 위해 재원 사용계획과 학교 교육내용 등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재원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특정 한 곳의 대학만이 운영하는 선상 무지개학교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 보다 다수의 학교와 학생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청의 핵심사업으로, 이른바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를 20곳이나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규모도 도민후보로 추대한다.

선상 무지개학교의 운영 재원 20억원에 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이른바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를 20곳이나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규모도 도민후보로 추대한다.

선상 무지개학교의 운영 재원 20억원에 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이른바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를 20곳이나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규모도 도민후보로 추대한다.

이해 관계 장만재 도교육감은 "당초 사업을 위해 비용 부담이 큰 크루즈 임대를 고려했는데, 대학측이 배와 인력을 제공키로 해 교육청에 사실상 교육기부를 하는 것"이라며 "인연은 인연이고, 공무는 공무일 뿐이다. 중대한 사업과 인연을 결부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말했다.

또 장 교육감의 가족은 "이 사업에 대해 언급한 적도 들은 바도 없다"고 언급했다.

해당 대학 교무간부는 "교육청이 사업을 제안해 해양분야 인재 육성을 차원에서 돕기로 했다"며 "학생들이 공부하는 실습선을 이용하는 점 등 학사운영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고심했으며, 개인적인 인연으로 사업 추진을 얘기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해 10년전 아내와 사별하고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임씨를 만나 애인사이로 발전했다가 임씨가 최근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씨는 아파트 계약금을 차지하기 위해 '임씨가 지병으로 숨졌다'며 거짓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달 9일 낮 12시30분께 의식불명이 된 지 3일 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에서 "임씨가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의 범행은 임씨의 딸(25)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의 통장에서 누군가 돈을 인출해간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탄로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애인 의식불명된 틈에

## 통장·도장 빼내 2000만원 몰래 인출 아파트 계약해지 1300만원도 가로채

### 서부경찰 40대女 구속

결혼을 전제로 만난던 남자가 숨질 위기에 놓이자 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18일 지병이 있던 애인이 의식불명에 빠지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간 박모(여·48·영광군 영광읍)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9일 새벽 0시1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애인 임모(57)씨의 승용차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간 뒤 인근 은행에서 현금 2050만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날 오전 11시에 임씨 소유의 아파트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한 뒤 계약금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혼자 살고있던 박씨는 지난해 10월께 지인을 통

해 10년전 아내와 사별하고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임씨를 만나 애인사이로 발전했다가 임씨가 최근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씨는 아파트 계약금을 차지하기 위해 '임씨가 지병으로 숨졌다'며 거짓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달 9일 낮 12시30분께 의식불명이 된 지 3일 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에서 "임씨가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의 범행은 임씨의 딸(25)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의 통장에서 누군가 돈을 인출해간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탄로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나원침 (8224) 김종두



# 신종플루 환자 광주서 또 사망

18일 오전 광주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고위험군 환자가 숨져 신종플루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 등 고위험군과 노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조모씨(66·광주시 동구)가 이날 새벽 3시5분께 폐렴합병증이 악화돼 숨졌다.

조씨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기관지 확장증을 앓아온 고위험군 환자로, 지난해 12월21일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이모씨(55)가 합병증이 악화돼 사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비탈길 통학버스 밀려 운전자 증대

### 여고생 2명도 다쳐

18일 오후 6시5분께 광주시 남구 한 여자고등학교 체육관 앞 비탈길에서 정차 중이던 25인승 통학버스가 뒤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김모(53)씨가 버스가 비탈길에서 뒤로 밀리는 것을 몰로 막으려다가 차랑에 깔려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광주

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변에 있던 여고생 2명 역시 버스에 부딪히면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주승용 의원 정치자금 의혹 '무혐의'

### 검찰 '비리혐의 발견 안돼'

검찰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8일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주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했지만, 비리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판결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주 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주 의원이 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11월 2일 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당시 주 의원은 "나와는 무관하며, 명백한 야당 흡집내기 수사"라고 주장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오현섭 전 여수시장

### '1억 수뢰'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8일 뇌물수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 거뒀던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

수)가 드러나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및 대금 지급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D사 대표 김모(66)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 외국 대학생들의 도자기 체험

18일 오후 광주시 남구 압촌동 도예문화센터에서 조선대 외국자매대학 학생 46명이 초보구이 된 컵에 문양을 새기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조선대 외국자매대학 초청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는 미국 메러이주립대 학 등 3개국 7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누드사진 게재' 신정아 사건

# 문화일보 8천만원 지급 종결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 게재를 두고 벌어졌던 신씨와 언론사 간의 법정 공방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

혔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실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 '사라진 銀' 택배 포장지 훼손 탓

# 쌀 알갱이 크기 흩어져 미수거 책임 논란 일듯

'은(銀) 2400돈 분실 사건' 광주일보 1월 18일 6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은 18일 분실된 은이 택배 배달 과정에서 포장지가 훼손되는 바람에 사라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대전 모 택배회사 물류창고를 방문해 현장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모 택배회사 직원들이 지난 15일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 떨어진 쌀 알갱이 크기의 은을 수거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당초 주문된 은 11.25kg 중 주문자가 배달받은 2.15kg을 제외한 가운데 일부를 이날 수거했다.

그러나 경찰은 쌀 알갱이 크기의 은이 물류창고 전체 바닥에 흩어진 탓에 은 수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소포는 지난 15일 서울의 A급은방 도매점에서 발송된 뒤 대전과 광주를 거쳐 피해자 정모(38)씨의 은방에 배달됐다.

경찰은 분실된 은이 분류과정에서 포장지가 훼손되면서 바닥에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수거된 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중형기자 golee@

# '원정 도박' 신정환 오늘 입국 조사



○해 외에서 역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씨가 19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신씨의 입국 배경에 관심이 고조.

○18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9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언론에 심경을 밝히고,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것.

○신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W호텔 카지노에서 역대 바카라 도박을 한 의혹이 제기되자 홍콩을 거쳐 내달 등에서 체류해왔으며, 검찰은 같은해 9월 인천 시민 A씨의 고발장을 토대로 신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연합뉴스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b>7급 종합반 (이론)</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b>9급 종합반 (이론)</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림기술직 강의시간: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개강)	<b>9급 문제풀이</b>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검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b>법원/검찰직</b>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출출출강	<b>9급 야간반</b>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반	<b>농업직/기술직</b>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b>명품 "강력단과"</b> 영역, 국가, 행정, 행정, 국어, 한문, 회화, 경찰, 교정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b>합격 소망직 (전문)</b>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개강)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 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